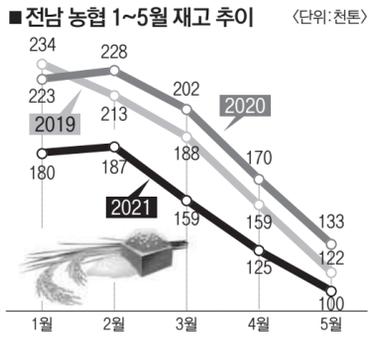


15개월간 떨어질줄 모르는 쌀값...수확기엔 안정될까

농협 전남본부 쌀 재고 10만t...전년비 25% 감소 3년 내 최저
80kg 산지 쌀값 22만3752원...지난해보다 3만2928원·17.3% ↑
농민 "37만t 비축미 방출에 쌀값 하락 걱정...공공수급제 실시해야"

쌀값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하면서 올해 수확기 수매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남 쌀 재고가 전년보다 25%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양곡 8만t을 이달 중에 풀기로 했다. 20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 쌀(조곡) 재고는 10만t으로, 지난해 같은 달(13만3000t)보다 24.8%(-3만3000t) 감소한 수치다. 지난 2019년(12만2000t)에 비해서도 18.0%(-2만2000t) 적다. 농협은 전남 쌀 전체 생산량의 35~40% 가량을 취급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남 쌀 재고는 미국중합처리장(RPC)이 아닌 곳에서 크게 줄었다.

전남 농협 RPC 재고는 6만2000t으로, 1년 전(7만7000t)보다 19.5%(-1만5000t) 줄었다. 비 RPC 재고는 전년보다 32.1%(-1만8000t) 감소한 3만8000t으로, RPC보다 감소율이 더 높았다. 올해 농협 월별 쌀 재고량은 최근 3년(2019~2021년) 가운데 최하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1월 18만t이었던 전남 쌀 재고는 2월 18만7000t으로 늘어난 뒤, 15만9000t(3월)→12만5000t(4월)→10만t(5월) 등 석 달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5분의 1을 차지하는 전남에서는 지난해 50년 만에 가장 적은 쌀을 생산하면서 쌀값은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달 15일 기준 산지 쌀값(정곡 80kg)은 22만3752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19만824원)보다 17.3%(3만2928원) 올랐다. 산지 쌀값(15일 기준)은 지난해 4월(18만9668원)부터 1년 3개월 연속 상승 추세다. 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올해 3월부터는 전달과 비교한 상승폭이 조금씩 줄어드는 양상이다.

쌀값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상승(전년 동월비)을 이어가는 가운데 수확기 이후 가격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쌀 재고는 수확을 하고 나서 10월 급격히 늘어난다. 지난해 9월 8t이었던 농협 쌀 재고는 다음 달인 10월 147t으로 18배 넘게 뛰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이달 중으로 정부 양곡 8만t을 추가로 시장에 공급하기로 했다. 공급 양곡 가운데 5만t은 2020년산이고 3만t은 2019년산이다. 이번 조치는 농식품부가 지난해 쌀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올해 37만t 한도 내에서 정부 양곡을 시장에 공급하기로 한 쌀 수급 안정 대책에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4월 정부 양곡 21만t을 공급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들어 29만t의 정부 양곡을 공급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잔여 물량 8만t은 시장 동향을 봐가며 공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양곡의 구매 대상은 매출

액 10억원 미만 업체를 제외한 도정업 신고업체다. 농식품부는 매출 규모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나눠 2020년산과 2019년산의 응찰 한도를 설정했다. 2020년산에는 재고가 부족한 업체가 원료곡을 먼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했다. 이번 공급 물량은 이달 24일 입찰을 거쳐 28일부터 산지 유통업체에 인도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은 정부 양곡 시장공급 계획에 대해 성명을 내고 "정부 양곡 37만t 방출은 다소 인상된 쌀값을 기어올라하락시키겠다는 처사"라며 "정부는 먼저 양곡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하며 국민에게 안정된 가격에 쌀을 공급하며 농민에게는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쌀 공공수급제를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19 식량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쌀, 보리, 밀, 콩 등 주요 곡물 150만t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비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쌀 예상 생산량 조사 결과는 오는 10월 8일 공표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농협 전남본부, 여름장마·태풍 등 농업 재해 대책·지원 방안 모색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8일 농업재해대책위원회를 열어 여름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전남농협은 올해 자연재해 피해 예방, 피해복구, 선제적 피해지원의 3단계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법안(중양회, 경제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손해보험) 신속한 업무연계 지원을 위한 방법들을 모색했다. 농업재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8월 구례, 곡성 등 전남에 내린 집중호우 피해에 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농업인 금융지원, 생필품 선 지원, 성금 모금, 긴급 구호 꾸러미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영암농주농협이 운영 중인 '빨래방 차'를 지원했다. 박서홍 본부장은 "자연재해에 있어서 만큼은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준비해야 한다"며 "농업인과 농작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미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 18일 열린 농업재해대책위원회에서 박서홍(가운데) 농협 전남본부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농협 제공>

농협 광주본부, 영농철 일손돕기 마무리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난 17일을 끝으로 17차례에 걸친 '화목농촌봉사단' 활동(사진)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 화목농촌봉사단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발생한 농촌 영농인력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출범했다. 지난 4월20일부터 두 달 동안 광주지역 농협 임직원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농가를 찾아 일손을 보냈다. 도움을 받은 농가는 총 20가구였으며, 임직원 600여 명이 봉사에 동참했다. 이들은 시설하우스 정비작업, 양파·감자 등 농작물 수확, 모판 작업, 멀칭 작업(논바다 댈기), 잡초 제거 등 농가에 필요한 일손돕기를 펼쳤다. 강형구 광주본부장은 "두 달 동안 일손부족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인 농촌을 돕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손돕기에 참여한 준 범농협 임직원들에 감사를 전한다"며 "농협 임직원들의 흠뻑 땀방울이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농촌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

농어촌공사 전남본부, 농업분야 ESG 경영 선포

같이, 그린(Green), 행복, 전남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 나서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18일 'ESG 경영 선포식'을 열고 농업분야 친환경 경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주제는 '같이, 그린(Green), 행복, 전남'으로, 전남본부는 앞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을 위

한 경영을 펼친다. 우선 환경부문에서는 담수호 등 농업시설물을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 규모를 오는 2025년까지 132MW를 확대한다. 간담급수, 논물 알계 대기 등을 통해 연간 2273t 상당 탄소를 감축하고 논농업 온실가스 저감 및 지하수·토양 오염정화사업 추진에 앞장설 방침이다. 사회부문에서는 재해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 농업시설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며, 농업 시설물을 활용한 '사회적 힐링농장' 운영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고객의 경영참여 통로를 40여 가지로 늘린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전남본부 전 직원의 이름과 얼굴로 만든 '정령전남' 현수막을 내걸었다. 성도남 본부장은 "공사는 ESG경영 수행에 최적의 기업으로서 농업분야 탄소중립, 친환경 사업 전환, 경영기치 창출 등을 통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이로 인한 성과가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